

데뷔 72년차 '영원한 현역' 윤복희

“가수는 취미일 뿐 뮤지컬이 내 삶 100번째 작품 제작 중”

유주현 기자 yijoo@joongang.co.kr

데뷔 72년째인 78세의 가수 윤복희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그동안 쑥스러워서 안 했었다”니 기가 막히다. 1960년대 대한민국에 미니스커트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이자 지금도 수많은 가수들이 커버하는 불후의 명곡 ‘여러분’의 원곡자요, 스스로 걸그룹을 결성해 1964년 영국 BBC에서 비틀즈 노래를 불러 현지 신문을 장식한 ‘최초의 한류 아이돌’이 콘서트가 쑥스럽다니.

이유가 있다. 그의 정체성은 뮤지컬에 있다. 부친 윤부갑이 만든 극단에서 5살 때부터 가무극을 하고 70년대 최초의 상업 뮤지컬 ‘빠담빠담빠담’을 시작으로 불모지를 개척한 ‘뮤지컬 대모’가 그다. 지난해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공로상을 받은 ‘데전드’지만 여전히 현역 배우다. 7번째 출연 중인 뮤지컬 ‘하모니’를 연습 중이고, 100번째 뮤지컬 ‘바울과 나’도 제작 중이다. “콘서트는 마지막일지 몰라도 뮤지컬은 죽을 때까지 할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첫 서울 단독 콘서트”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매니저나 기획사가 없으니까요. 칠순 때 후배 허준호가 선물로 LA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극장을 빌려서 콘서트를 제작해 줬어요. 뮤지컬 스태프들과 같이 하니 편하고 재밌어서 국내에서도 지방부터 가깝씩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껴주셔서 70여년 활동을 하고 있으니, 감사카드 보내는 마음인 거죠. 5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게 익숙하지, 가수 윤복희로선 별 내세울 게 없으니 쑥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하모니’만 신경 쓰고 있어요. 7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규모가 커지고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데뷔 5년째였고 어릴 때 더 유명했어요. 어린애 무대 서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부모님 계실 때부터 영화도 했고, 어려움은 없었어요. 남들은 소녀가장이 오빠 학비 대느라 고생한 줄 알지만, 전부터 경제활동을 했으니 그저 당연한 일이었어요. 돕는다는 생각도 없었죠.”

7살에 모친을, 9살에 부친을 잃었지만 ‘수양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있다. 60년대 그를 싱가포르에서 발탁해 영국을 거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영국인 매니저 얘기다. 걸그룹 ‘코리아 키튼즈’를 결성한 것도 그의 영향이다. “우연히 제 공연을 보시고 영국 갈 의향이 없냐, 생각 있으면 이 춤추는 여자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40분 짜리 프로그램을 만들라더군요. 그게 ‘코리아 키튼즈’가 됐어요. 16살 때부터 저를 돌봐준 처음이자 마지막 매니저인데, 부부가 저를 정말 딸처럼 아끼면서 제가 원하는 건 다 하게 해주었어요. 뮤지컬 하느라 한국에 정착할 때도 기뻐해 주시고, 보러 오기도 하셨죠. 지금도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계세요.”

“BBC에서 비틀즈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니 한국어가 들리더라고요.”

“Can't Buy Me Love”라는 곡의 첫 부분을 ‘어디에 사랑~’이라고 개사를 해서 불렀죠. 지금 보니까 우습던데, 그때 한국이란 나라를 아무도 모르니 한국인이란 걸 티 내고 싶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동양 여자들이 그런 무대를 하는 게 처음이었으니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었죠. 거기선 실력이 문제지, 한국인이라서 힘든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여기서 부모도 없이 외로웠다면 외국에선 걸그룹 언니들과 함께 다니니 더 좋았죠.”

“불후의 명곡이 된 ‘여러분’ (1979)은 직접 만드셨다고요.”

“당시 오빠를 도와주려고 ‘유행가 작사·곡’으로 발표했지만, 내가 만든 가스펠 중 하나예요. 76년 2월 27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령을 만난 뒤 제가 만든 곡은 다 가스펠이고 유행가는 ‘왜 돌아보오’ 딱 한 곡밖에 없어요. 뮤지컬 동료들이 내가 뿔뿔하는 걸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을 뿐, 가요는 관심이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팝송과 뮤지컬만 해서 그런지 가요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가요들이 많은데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음악은 취미일 뿐, 내 뿔은 뮤지컬이죠.”

“한국 뮤지컬 시장을 개척한 셈인데요.”

“‘빠담빠담빠담’ 제안이 왔을 때 처음엔 안 한다고 했어요. 미국 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극단에서 제게 성경을 가르치던 하용조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한국에선



전통통이던 5살 때 아버지가 만든 가무극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대에 데뷔한 윤복희는 “내게 뮤지컬은 일이 아닌 삶”이라고 했다.

최기용 기자

데뷔 5년차 9세에 미 8군 무대 올라
걸그룹으로 BBC서 비틀즈 노래도

77년 ‘빠담빠담빠담’ 뮤지컬 첫발
피터팬 등 웬만한 작품 20년씩 출연

45년간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아
좋아하는 일만 해 온 축복받은 삶

목사님이 내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매니저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공부 삼아 하라고 해서 무조건 따랐죠. 결국 그 작품을 77년부터 97년까지 했고, ‘피터팬’은 79년부터 97년까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80년부터 2006년까지 다 원 캐스트로 했어요. 그렇게 십여 년 하다 보니 다른 뮤지컬 배우들이 나오더군요.”

“26년 동안 연가한 막달라 마리아에 애착이 크셨어요.”

“웬만하면 20년씩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 모든 역할이 소중해요. 마리아는 환갑이 넘으니 도저히 못하겠더군요.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앤지 쑥스러워서요. 지금 나에겐 ‘하모니’ 밖에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고 지나간 건 잊어버리죠.”

“여러분’은 작곡 후 오빠 도우려 이름 내줘

그는 편안한 티셔츠와 레깅스 차림에 허리 색을 차고 나왔다. 미용실도 다니지 않고 의상도 직접 만들어 입는다는데, 남의 시선은 개의치 않는 눈치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을 평생 하면서도 “관객 반응은 신경 써볼 적 없다”고 말하는, ‘마이에이’ 그 자체다.

“60년대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명동을 걸을 때 마주 오던 남자가 맨홀에 빠졌다고요.”

“다자이너 노라노 선생을 만나러 가는데 명동에 차가 못 들어가서 걸었죠. 앞에 오는 사람이 맨홀에 빠지는데, 내가 꺼낼 수도 없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미니스커트에 놀란 게 아니라 나를 실물로 보니까 놀랐던 것 같아요.”

“뮤지컬 초창기엔 배우가 부상을 당해도 쉬지 못했다고요.”

“낮 공연 때 다지면 병원에 갔다가 밤 공연을 한 시

간쯤 늦게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관객은 다들 기다려 주셨죠. 그런 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일이라 생각하면 힘들었지만, 엔터테인먼트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이걸 일이라 하면 삶이죠. 난 5살 때부터 이것밖에 몰랐고, 좋아서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삶인가요.”

그는 평생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어려웠더라면 모르고 살았다면서 “축복 받은 삶”이라고 했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 이후 자녀도 없이 혼자 살아온 45년 외롭지는 않았을까. 그는 “외로움 시간이 있으면 잔다”면서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결혼과 이혼에 실수는 있었죠.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랐으니 내가 가진 게 없었어요. 두 번째 남편인 남진씨와는 불꽃만 개월밖에 안 살아서 잘 모르고, 첫 번째 결혼을 유지 못한 게 그분과 팬들에게 죄송할 뿐이죠.”

그는 지금도 첫 남편(가수 유주용)과 좋은 친구로 지낸다고 했다. 의논할 일이 생기면 친오빠가 아니라 첫 남편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이다. “13살 때부터 연애를 했고, 줄곧 나를 보호자처럼 챙겨준 사랑이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그분께 도움을 청하죠. 헤어질 때도 감정이 상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그런 일이 있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내게 이성적인 만남이라면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100번째 뮤지컬 이후도 궁금한데요. 못 다한 꿈이 있을까요.”

“여한 없이 살았어요. 두 번 살라고 하면 못할 것 같네요. 너무 스케일이 큰 삶이고,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하며 살았다는 건 객관적으로 봐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저 죽을 때까지 뮤지컬을 할 겁니다.”

일이 아니라 삶이라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1 뮤지컬 ‘피터팬’에서 후크선장 역의 개그맨 김형근과 함께.

2 뮤지컬 ‘빠담빠담빠담’에서 김남주(왼쪽), 남경주(오른쪽)와 함께. [중앙포토]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